

친애하는 방재와 보험 독자 여러분!

2013년 희망찬 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뱀의 해라고 합니다. 뱀은 혐오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어 왔지만, 예로부터 뱀이 출현하는 꿈은 비범한 인물의 탄생과 관련된 태몽이거나 재물, 성공을 부르는 길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뱀꿈을 꾸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만사형통한 한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켜 보면 국제적으로는 유로존 재정위기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를 야기하였으며, 버마와 중국에서는 태풍과 지진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주변에서는 일본의 독도 관련 망언과 북한의 3대 세습, 미사일 발사 등으로 어수선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20년에 한 번씩 온다는 총선과 대선이 겹친 해로서 대선 분위기 속에 연말을 보냈으며,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 위축으로 인해 국제무역에 힘이 부치는 상황이고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로 인하여 서민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중에서도 KFPA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업무를 열정적으로 수행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고객이 원하는 세계 수준의 방재전문기관으로 도약' 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강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KFPA는 화재 안전 및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리스크나 재해는 더욱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 언제나 고객 중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고객 수요에 맞게 기존 업무를 전환하고,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업무를 준비함으로써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에 힘쓰겠습니다. 철저히 고객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예리한 통찰력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업무를 개발하고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목표 달성을 위해 상하 구성원간의 소통에 힘쓰고자 합니다.

동양 의학에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통증과 질환은 막힘과 불통에서 생기는 것이며, 소통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소통문화를 정립하고 임직원들이 상호인정과 존중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통해 하나가 될 때, KFPA만의 비전을 추구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통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여러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방재와 보험 독자 여러분!

논어에 임사이구(臨事而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나 큰일에 임해 엄중한 마음으로 신중하고 치밀하게 지혜를 모아 일을 잘 성사시킨다는 뜻으로, 세종대왕께서도 인용하셨던 사자성어입니다. 특히 올해는 KFPA가 설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KFPA 임직원 모두 임사이구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 올해의 경영 목표인 ‘고객이 원하는 세계 수준의 방재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밝고 희망찬 癸巳年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영광이 언제나 함께 하고, 가정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 1.

KFPA 이사장 이 기 영

